

國內情報

農業用 肥料引受 및 對農民販賣實績

6月15日現在 販賣累計：71萬餘屯

引受累計：75萬3千餘屯

6月15日 現在 農協에서 集計한 對農民販賣實績(累計)은 710,189屯으로 6月中에 57,190屯이 販賣되었다.

또한 農協이 各社로부터 引受한 物量(累計)은 753,316屯으로 肥種別 引受量은 尿素：193,968屯 硫安：1,553屯, 複肥：505,609屯, 熔成磷肥：17,188屯, 熔過磷：3,163屯, 過石：1,516屯, 煙草用：18,298屯, 山林用：12,033屯 等이며 6月中 引受量은 67,258屯(6月15日 現在)이었다.

肥種別 農協의 肥料引受 및 販賣實績은 다음과 같다.

肥料 農協引受・販売・現況

1982. 6. 15. 現在

肥種	引受		販賣		前年同期		備考
	當月	累計	當月	累計(A)	販賣(B)	A/B	
硫安	849	1,553	520	6,915	7,951	87.0	
尿素	23,466	193,968	18,382	188,230	237,032	79.4	
複肥	39,863	505,609	34,222	395,441	452,266	87.4	
熔磷	3,072	17,188	1,957	17,658	16,986	104.0	
熔過磷	-	3,163	637	12,836	14,116	90.9	
斗食	10	1,516	△ 45	1,464	796	183.9	
煙草用	1	18,298	△ 738	56,296	52,414	107.4	
山林用	-	12,033	1	12,026	11,777	102.1	
大豆用	△ 3	△ 12	△ 25	1,708	2,194	77.9	
其他	9,803	27,922	2,279	17,615	20,493	86.0	
計	(67,258) 77,061	(753,316) 781,238	57,190	710,189	816,025	87.0	※() 내는 기타제외
成分量	38,920	398,992	31,171	350,717	406,698	86.2	

西南海岸 63萬5,000ha 埋立
 農地 40萬ha 確保 食糧 增産 企圖

현대를 4 F 시대라고 한다. 예전엔 Food (식량) Fire (무기) Fuel (연료)의 3 F 시대였던 것이 73년의 석유위기 이후 화학비료의 비중이 커져 Fertilizer (비료)까지 합친 4 F 시대가 된 것이다. 말하자면 식량의 비중이 더 커진것을 알수있다. 食糧安洵라는 말이 국제적으로 자주 강조되고 미국의 穀物메이저가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멕시코서 今年6월에 열린 유엔 식량회의에서는 세계인구 11명 가운데 1명이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는것이 밝혀져 세계적 식량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케야르 유엔사무총장이 말한것을 보면 아프리카의 식량난이 특히 심해 1인당 섭취량은 10년전보다 15%나 줄었다한다. 지구상의 기아인구는 4억3천5백만명에 이르러 식량위기가 어느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런 식량위기는 73년의 이상기후로 소련이나 중공이 미국의 소매를 수백만톤씩 사들였을때부터 계속 돼 왔다.

綠色革命, 遺傳子工學을 통한 多收穫品種改良 경쟁이 치열하고 마닐라의 국제벼연구소에서는 기적의 쌀 IR8을 만들어 두배의 增收에 성공한지 오래다. 하나 우리나라에 보급된 이제통의 통일벼는 초기엔 놀라운增收를 보여줬으나 冷害에 약하고 병충해방제, 多肥등 조건이 까다로와 시련을 겪고 있다.

알고보면 육종학적으로 多收穫品種이 새로나와도 몇해안가 그 품종

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 遺傳的變異性을 잃어 그 작물은 脆弱하게 된다는 학설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일벼, 유신벼가 한때 놀랄만큼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가 시들어지는 경향이 있는것도 이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얘기는 미국 의회서 특별조사한 遺傳子工學의 오늘과 내일이란 리포트에도 나온다.

아프리카의 飢餓현상은 인구증가와 가뭄·홍수로인한 토양의 유출 때문이다. 表土깊이가 1인치도 안되는 薄土가 아프리카엔 많다. 미국의 옥수수 재배지대에도 連作으로 토양이 退化, 미국 전체 耕地의 3분의 1이 토양유출을 겪고 있고, 아이오와 耕地에선 해마다 2億톤의 表土가 사라진다는 조사보고까지 있다. 품종은 개량돼도 땅에 힘이 없어 농사가 안되는 것이다. 이토록 세계의 식량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선 보리농사를 해봤자 밀진다고 離農이 많아지는 형편이다. 농업 문제는 食糧安保의 次元에서 다루지 않으면 세계의 추세에 못따라가는 것을 잊어서 안된다.

따라서 이에 발 맞추어 現在 農業振興公社가 우리나라 西南海岸 干拓事業을 進行中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80年末 現在 우리나라 國土面積은 989萬9,000ha이며 이中 農耕地 面積은 22.2%인 219萬6,000ha에 不過하다.

國民 1人當 180坪 꼴인 農耕地마저도 商業地帶 및 工場地帶等으로 每年 잠식당하는 상황이다.

새로 開發되는 農耕地가 年 平均 8,000ha에 머무는 反面 잠식되는 農耕地는 14,000ha로 純 減少面積이 年平均 6,000ha에 達하고 있다. 昨年 한해동안의 農水產物輸入額이 21억9,000萬弗

(1조 5,000억원)에 이르고 食糧自給率이 42.2% 밖에 되지 않은 實情에서 農耕地가 오히려 줄어든다는것은 매우 심각한 問題라고 할 수 있다. 品種改良이나 營農技術科學化를 통한 增産에는 限界가 있는 만큼 무슨 수를 쓰든 農事지을 땅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多幸히 우리나라의 西南海岸은 간만의 差가 커 干拓地가 넓고 海岸線의 굴곡이 심하며,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은 한편 河川의 퇴적현상이 왕성하다. 그래서 農業振興公社가 지난 80年 調査한 結果에 依하면 西南海岸 63萬 5,000 ha를 埋立할 경우 40萬 1,000 ha의 農耕地를 새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分析됐다. 이中 11%인 4萬 4,300ha는 81年까지 開發이 끝났고 3萬 1,300ha에 對해서는 現在 工事が 進行中이다. 5次 5個年計劃期間인 86년까지는 2萬 3,000ha를 追加로 開發해 進度率을 17%로 끌어올리고 6次 5個年計劃期間이 끝나는 91년까지는 全體의 38%인 15萬 4,000ha를 完工시킬計劃이라 함. 나머지 24萬 7,000ha는 92年 以後에 着工할 예정이어서 西南海岸干拓事業은 2,000年代로 이어지는 大役事라 할 수 있다.

40萬 1,000ha의 새 農地가 조성 된다면 湖南平野의 4배에 가까운 옥담이 태어나는 셈이며 1百 14億屯의 水資源을 確保할 수 있다 한다.

한편 食糧面에서는 1毛作만 한다고 해도 1,500萬石의 쌀이 增産돼 1,500萬名의 食糧을 해결 할 수 있다고 함.

그러나 이 같이 우리나라 西南部 地圖를 바꾸어 놓는 大事業인 만

금 所要資金 또한 엄청나다고 보고 있는데 40萬1,000ha를 開發하는데 드는 總事業費는 12兆9,485億원으로 추정되며 完工分 및 工事が 進行된 部分을 除外하더라도 今年 우리나라 國家豫算보다도 많은 12兆4,885億원이 必要하다고 함.

이中 99%가 정부부담으로 예정돼 있어 앞으로 어떻게 資金을 調達하느냐가, 이 事業의 持續 如否가 달렸다고 본다.